

第277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임시회의록)

第2號

國會事務處

2008年8月26日(火) 午後 2時

議事日程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상임위원장 선거
3.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4. 윤리특별위원장 선거
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최윤희) 선출안
6.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附議된案件

○ 의원신상발언	2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3
2. 상임위원장 선거	3
3.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3
4. 윤리특별위원장 선거	3
○ 상임위원장(국회운영 홍준표·법제사법 유선호·정무 김영선·기획재정 서병수·외교통상통일 박진·국방 김학송·행정안전 조진형·교육과학기술 김부겸·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고희길·농림수산식품 이낙연·지식경제 정장선·보건복지가족 변용진·환경노동 추미애·국토해양 이병석·정보 최병국·여성 신낙균)·윤리특별위원장(심재철) 인사	5
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최윤희) 선출안(의장 제의)	8
6.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장 제출)	9
7. 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2
8.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2
9.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3
10.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3

11.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3
12.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3
13.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3
14.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
15.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
16.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
o 5분자유발언	14

(14시11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구기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형오 오늘은 상임위원장 선출, 기타 안건 처리를 하는 데 4시간 정도의 소요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원 여러분들이, 원만하고 신속한 의사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남 진주 최구식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 한 80여 명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혜영·강기갑·문국현 의원 등 90인으로부터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신상발언

(14시14분)

○의장 김형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현 의원 오늘 여러분들께 최근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음해성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 말씀드리고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몇 자 적어 왔습니다.

요점은, 절대 제가 돈을 받거나 달라고 한 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

째는 현재 잘못된 조작된 혐의에 의한 동의안은 즉각 철회되고 그 중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국회법을 보완해서 바로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취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입니다.

요즘 검찰의 음해성 주장들이 전혀 걸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저와 저희 창조한국당에 대한 오해와 우려가 상당해 오늘 기쁜 날이겠습니까만 부득이 잠시나마 진실을 밝혀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요구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비자금과 떡값 없는 투명한 기업, 신뢰사회 만들기를 위해 평생 반부패운동에 앞장서 온 제 발길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 8월 22일 저녁 수원지방법원 공개법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던 피의자 이한정이 공개법정의 진술에서 문국현 대표는 결코 돈을 요구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분명히 다섯 차례나 진술하고 양심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간 장기간 검찰에 의해 격리 구속되어 있어 알려져 있지 않던 대질신문에서의 검찰 혐의 부인 사실들과 부도덕한 회유 사실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2008년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조작된 것이 확인된 혐의를 바탕으로 8월 20일, 수원 공개법정이 있기 이틀 전에 청구된 수원지검의 국회동의 청구는 잘못된 것이고 원인 무효입니다. 검찰은 즉각 동의안 청구를 자

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국회법이 불완전하여 이렇게 조작된 혐의를 기반으로 한 동의안이 청구되더라도, 또 지방법원의 영장 판사가 범죄혐의와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 정밀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그 동의안을 송부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장치를 저희 스스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헌적인 부분과 미비된 점을 제18대 국회에서 보완해야만 될 것입니다.

혐의 사실의 진부를 알지 못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또는 호불호에 따라, 선입견에 따라 동의안을 맞이한다면 이는 국회의 권한과 권위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이 무리할 때는, 잘못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지적해 주고 바로잡는 것이 정말로 검찰을 사랑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 검찰이 공포의 대상, 인권탄압과 지도자들의 음해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17대 국회에서 못 다한 검찰 개혁을 이번 제18대에는 반드시 완성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 검찰, 정치적 중립 검찰, 신뢰의 검찰이 탄생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14시20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4인에서 25인으로 하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6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은 부록으로 보 존 함)

그러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상임위원장 선거

3.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4. 윤리특별위원장 선거

(14시22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장 선거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번 선거는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장 등 모두 열여덟 명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장의 투표용지에 열여덟 명의 위원장을 모두 기재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김용태 의원, 손범규 의원, 유정현 의원, 백재현 의원, 안규백 의원, 김용구 의원, 정영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구기성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2장의 투표용지에 열여섯 명의 상임위원장과 두 명의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란 안에 각각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4시25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37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3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기타 득표수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 인사는 투표 결과에 대한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29표를 얻은 홍준표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32표를 얻은 유선호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27표를 얻은 김영선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32표를 얻은 서병수 의원

이 기획재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32표를 얻은 박진 의원이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33표를 얻은 김학송 의원이 국방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28표를 얻은 조진형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31표를 얻은 김부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30표를 얻은 고흥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31표를 얻은 이낙연 의원이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경제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29표를 얻은 정장선 의원이 지식경제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30표를 얻은 변웅전 의원이 보건복지가족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23표를 얻은 추미애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해양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30표를 얻은 이병석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31표를 얻은 최병국 의원이 정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29표를 얻은 신낙균 의원이 여성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29표를 얻은 이한구 의원이 국회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202표를 얻은 심재철 의원이 국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상임위원장(국회운영 **홍준표**·법제사법 **유선호**·정무 **김영선**·기획재정 **서병수**·외교통상 통일 **박진**·국방 **김학송**·행정안전 **조진형**·교육과학기술 **김부겸**·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고흥길**·농림수산식품 **이낙연**·지식경제 **정장선**·보건복지가족 **변웅전**·환경노동 **추미애**·국토해양 **이병석**·정보 **최병국**·여성 **신낙균**)·윤리특별위원장(**심재철**) 인사

(16시35분)

○의장 **김형오**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열여덟 분의 위원장으로부터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준표**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 **홍준표** 18대 국회가 참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이 국회에 오셨는데 참 원만하게 여야 협상을 빨리 끝내지 못하고 여태 끌어온 점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 의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장 1년을 하면서 야당을 존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서 국회를 개혁하고 일하는 국회 그리고 열심히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홍준표** 위원장 축하합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선호**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유선호**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주의와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여야가 상호 합의 하에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유선호** 위원장 축하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선**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 **김영선**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구성된 18대 국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흥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과 방패 노릇을 하는 합리성과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발전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이제는 지적재산권의 강국과 금융 서비스의 강국으로만이 여러 가지 국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일자리 창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미래의 과제를 향해서 지나간 문제들을 다시 정리 정돈하는 정말 중앙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모든 의원님께 봉사와 헌신과 사랑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함께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성심껏 뒷바라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영선** 위원장 축하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병수**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 **서병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

한 가운데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해서 다루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김형오 국회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과 더불어 힘을 합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오 서병수 위원장 축하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진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박진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외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외교 통상 통일 분야에는 국가적인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외통위는 우리 외교와 통상을 선진화하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뽑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오 박진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학송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委員長 金鶴松 김학송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18대 국회의 국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여야 없이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최다 득표로 이렇게 선출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안보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기의 중요함을 모르듯이 평소에는 안보의 중요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듯이 나라의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의 존재나 국민이 존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야는 앞으로 안보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어서 강력한 국방력 확립과 아울러 안보 태세의 확립을 위해서 여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그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국방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국방위원장으로서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학송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진형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安全委員長 趙鎭衡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뽑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인천 부평갑의 조진형 의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생활 안정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행정 안전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선진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모두와 함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혈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조진형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부겸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김부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경기도 군포 출신 김부겸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이 교육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사교육비 지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공교육 사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문제를 올려서 토론하는 그런 위원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로 자신들이 국가적 주요한 어젠다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오해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섭섭한 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가가 새로운 발전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적 R&D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특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각 대학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따뜻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의원님들 모두 다가 합쳐서 18대 국회가 국민들의 이런 아픈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부겸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흥길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민들의 관심 또 우리 국회의 관심이 저희 위원회에 많이 쏠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고흥길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낙연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이낙연 이낙연입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 뽑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농어촌은 마치 늙은 어머니처럼 작고 초라하고 쇠약해져 있습니다. 국민은 식품의 안전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이런 시기에 농어업을 살리고 농어민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이낙연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장선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위원장 정장선 정장선 의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 회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정장선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변웅전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변웅전 변웅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도 아닌, 제1야당도 아닌 제3의원내 교섭단체의 유일한 상임위원장이입니다. 때문에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 건강과 국민 복지 그리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이러한 위원회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오순도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변웅전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추미애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勞動委員長 秋美愛 우선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 제가 4년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는데 감회가 새삼스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기사회생한 위원회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없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다시 생기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쾌적한 환경과 또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늘 있는, 노동권이 보장된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선진 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환경과 노동에 대한 어떤 건강한 철학을 정립할 때가 바로 이때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막중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오 추미애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병석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위원장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국토해양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동맥인 도로, 철도, 항만과 공항이 있습니다. 저는 국토해양위원장으로 미래지향적인 국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서민들의 땅과 주택과 공단에 일터가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 공간 창출과 주거 안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끝자락, 아름다운 섬,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지키는 일에도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오** 이병석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병국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원장 최병국** 최병국 의원입니다.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한 보안·정보 업무가 정말로 옹고 바르게 그렇게 제 기능을 다하면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모든 힘을 다하는데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최병국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낙균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장 신낙균** 여성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끔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원님의 누이나 따님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뜻을 살피면서 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신낙균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한구 의원의 인사순서입니다. 방송 인터뷰 관계로 부득이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재철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심재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8대 국회는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국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심재철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최윤희) 선출안(의장 제의)

(16시55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최윤희)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4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지난 3월 20일 신혜수 위원의 임기 만료로 궐원된 위원 1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최윤희의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오늘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호명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구기성**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최윤희) 선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호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투표개시)

○의장 김형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수고했습니다.

투표 다 하셨지요?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지요?

(17시1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9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9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193표 중 가 165표, 부 21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최윤희)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장 제출)

(17시18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6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의 최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장 최인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왔었던 전남 나주 화순 지역구 최인기올시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이른바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합리적인 법적 예방기준과 통제규정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류근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난 8월 19일 여야 원내대표단 간 합의를 통해서 위원회안으로 성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에서 생산된 소의 조직 중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 및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된 뇌 눈 척추 머리뼈 척추 등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수입 금지 품목에 추가하였고,

둘째,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 금지 품목에 추가하고 수입 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인 수입중단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 위생조건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재 민간 소속의 관리 수의사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전환해서 수입육의 현물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고시한 쇠고기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부칙 7항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수입 중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무쪼록 이 법안은 지난 4월 18일 한미 정부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타결 이후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던 엄청난 국론 분열과 대립과 갈등 과정에서 초래되었던 표출된 국민의 여망을 정치권에서 수렴해서 여야 합의로 성안된 법률안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형오 최인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에 특혜를 주는 법입니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수입하는 법안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을 기억하십니까?

어린 여학생들이, 어머니들이, 또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 정부에게 요구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도저히 걱정돼서 못 먹겠다, 그러니 미국과 재협상을 해서 마음 놓고 밥 한 끼 먹게 해 달라는 아주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권한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이라도 해서 미국과 재협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 개원에 합의했을 때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서 개정한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협상 내용은 이 개정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국민적 요구는 과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을 보면 ‘이미 고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에 신설된 광우병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조항은 바로 이 부칙 때문에 미국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100만 명의 촛불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사과하시고 추가협상을 하셨습니다. 그 추가협상의 결과 30개월령이 넘는 미국산 쇠고기는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성과라고 국민들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 수출업자들의 민간 자율규제에 불과합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잠정 조치에 불과합니다.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법으로라도 30개월 넘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칙 제2조제1항 단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입 시에 국회 심의를 받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심의라는 것이 어떤 법률적 구속력도 없다는 것은 문헌상 분명합니다.

미국 축산업자들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자율규제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우리 정부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이제 수입하겠다고 할 경우에 과연 우리 국회가 심의라는 것으로 정부의 수입 허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개정안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 건강권과 식탁 안전을 지킬 책무를 벗어던질 명분이 될 뿐입니다.

또 이 개정안은 앞으로 국민의 식탁 안전을 더 위협할 위험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광우병 발생 국인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이렇게 국내법상으로 명확하게 허용하고 나면 광우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국가이지만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미국과 함께 작년에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된 영국이나 최근에도 인간 광우병이 발병한 스페인이나 캐나다 등이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을 요구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피할 명분조차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대체 우리 국회가 어떤 법률로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 개정안에는 광우병이 일어날 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권한조차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광우병이 추가발생할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일시적 수입중단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왜 이런 조건을 붙여두는 것입니까?

미국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동물사료로 허용하는 곳입니다. 교차오염 가능성이 상존합니

다. 하지만 광우병 검사율은 미국 내 소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일어날 때에는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미국이 요구하는 데 따라서는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 못할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습니다. 광우병이 생기면 무조건 즉시 수입 중단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과연 이 개정안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의 잘못된 졸속 협상으로 인해서 수십만, 수백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듭된 사과와 두 차례에 걸친 추가협의를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식탁 안전은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공안정국만 우리 국민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에 전혀 걸맞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 특혜법입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허용법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민의 건강과 식탁안전을 보장하고 미국과 재협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바로 국회가 문을 열 때 바로 그 정신으로 돌아와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뜻을 아직 잊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종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충주 지역구 민주당 소속 이시종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최인기 의원께서 제안설명 드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그동안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중한 책임감 속에 많은 고뇌를 거듭한 끝에 오늘 본회의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당의원들은 정부의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강력한 입장표명 때문에 고민하고 야당의원들은 수

백만 국민의 촛불민심 때문에 고민하며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가축전염병개정법률안은 한미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외쳐온 수많은 국민과 시민단체에게 그리고 통상마찰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개정 불가 입장을 밝혀온 정부에게도 양쪽 다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민건강권이 훼손되고 검역주권이 포기된 최악의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특위 위원들이 조문 한글자 한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며 지혜를 모아 만들어 낸 협상의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촛불민심으로 나타난 국민적 요구를 법 개정안에서 최인기 의원께서 이미 보고한 내용을 본문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여야 합의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완강한 반대의사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부칙 2조에 “미국산 등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기 고시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의 삽입을 요구하고 나섰고 결과적으로 본문 개정안이 부칙 2조에 의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원점에서 협상이 진행되어 부칙 2조 본문은 그대로 두되 여기에 단서를 덧붙으로써 본문 내용의 큰 골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합의를 다음과 같이 이뤄낸 것입니다.

첫째, 부칙 2조 단서에 “다만 농림수산물부 고시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문제를 국회의 사전심의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통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현재도 고시부칙 7항에 의거, 반입이 불가하고 앞으로 반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그 허용의 전제조건인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의 판단을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심의를 받는 장치를 만든 것이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부칙 2조2항에서 미국과 같이 이미 위생 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셋째, 최초로 광우병 발생 국가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위생조건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국회심의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동의절차는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본회의에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심의절차는 본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행위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법 개정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같은 입장의 한 축이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또 다른 입장의 한 축으로 대립해 왔었는데 이번 가축법 개정안의 경우는 그동안의 관행과는 반대로 여야가 한 축이 되어 도출한 합의안을 정부는 통상마찰과 위헌이라고 반대하고 시민단체는 촛불민심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대해서 매우 곤혹스럽고도 진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당은 정부를 설득해야 했고 야당은 시민단체를 설득해야 하는 헌정사상 흔치 않은 사례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국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치가 협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한 축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내놓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60점은 넘은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수적 열세, 이미 저질러진 한미 쇠고기협상의 현실이라는 한계적 상황 속에서 촛불민심과 한미 관계 등을 백 번 천 번 고려하여 짜낸 교육지책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비록 졸작이라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 개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졸작이지만 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 수호와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 법 개정안에 꼭 찬성투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이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2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2인, 기권 19인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건을 의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7. 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7시38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7항 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영암에서 개최되는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09년 8월 2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7시39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2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09년 8월 2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9항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외국의 올바른 독도 및 그 영유권 표기 등을 위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독도 관련 법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09년 8월 2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7시40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0항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민족의 공존 및 번영을 위한 남북 관계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09년 8월 2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7시41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1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규제 개혁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09년 8월 2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7시42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2항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09년 8월 2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7시43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3항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후 변화 문제로 인한 인류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지구촌의 공동 노력에 기여하며 능동적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사회 발전을 담보하고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09년 8월 2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는 대답을 계속 해 주시는 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7시44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4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09년 8월 2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7시45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5항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신성장 지식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09년 8월 2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7시46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 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09년 8월 2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17시47분)

○의장 김형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 완산울의 민주당 소속 장세환입니다.

우리 국민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광주민중항쟁, 6·10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군사 독재정권으로부터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군사 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체제를 이룩했습니다. 언론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언론 자유는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낸 값진 투쟁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언론 자유가 지금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군사 독재식 언론 장악을 시도하면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마치 군사작전 하듯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1단계가 뉴스 전문 채널인 YTN과 공영방송인 KBS의 장악입니다.

KBS 사장 1명을 몰아내기 위해서 방송통신위

원회와 국세청, 검찰, 감사원에 이어 경찰까지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통해 간신히 이룩했던 경찰과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독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KBS 신임 사장 공모와 관련한 지난 17일의 권력 4인방 비밀회동은 이명박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 정권이 그토록 무리를 해 가며 KBS 사장을 몰아낸 이유가 뭘니까? 단 하나,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2단계는 비판적 인터넷 포털에 대한 재갈 물리기와 MBC의 민영화입니다.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전 정지작업입니다. 이미 한나라당에서 균불을 때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비판 신문에 대한 무력화입니다. 방송 장악의 행태로 봐서는 광고 압력 등 과거 독재정권 시절 언론 탄압용 수단들이 쉽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이처럼 무리수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기득권 수호적 발상에서 비롯됐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 10년 정권은 기득권 세력 중심의 독재체제를 국민 중심의 민주체제로 바로잡은 민주화 10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주장은 기득권 세력의 입장일 뿐입니다.

지금의 민주체제를 독재체제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본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모습을 감추었던 물대포와 백골단으로 불렸던 사복 체포조가 다시 시위현장에 등장했습니다.

집권당 원내대표의 정치적 결단이 청와대 전화한 통화로 간단히 뒤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7·80년대 건설현장을 지휘하던 건설회사 사장이 아닙니다. 언론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비상식적이고 시대 퇴행적인 언론 장악 야욕, 포기하십시오!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언론 장악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이라는 현행 법규정을 어긴, 지금의 방송 장악의 주역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언론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최근 모습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영원한 것입니다. 보편적 진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흔히 KBS를 공영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간 정연주 코드에 맞추어진 KBS는 공영방송의 모습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때로는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좌파들의 나팔수로 나서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 탄핵 방송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연주의 KBS는 남미의 독재자 차베스를 영웅으로 미화했습니다. 정연주의 KBS는 송두율 씨를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미화했습니다. 정연주의 KBS는 촛불시위에서 경찰을 공격하는 시위대는 가급적 축소한 반면에 경찰의 물대포는 최대한 확대시키면서 편파방송을 거리낌 없이 내보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방송 KBS를 그동안 편파방송으로 전락시킨 사람이 바로 정연주입니다. 이 정연주는 편파방송도 모자라서 경영 실패에다가 배임 의혹까지 저질렀습니다.

KBS는 정연주 체제 아래서 사상 최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1000억 원의 적자가 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실정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연주가 물러나는 것 역시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정연주가 물러나고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수구 좌파들은 방송 장악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KBS 개혁입니다.

국민들과 KBS 직원 대부분은 이번 새로운 사장 선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연주 코드에 물든 극히 일부 인사들이 이른바 '사원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장 선임을 반대하고 있습니

다. 정연주의 코드 세력이 아직도 일부에서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선임된 새 사장이 이 같은 편파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과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잘 대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얼마 전 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언론 장악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턱없는 덮어씌우기입니다.

그 자리는 KBS 개혁을 건의한 자리였습니다. KBS 사장의 임명 권한은 유재천 이사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데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모여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은 참모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모인 것이 왜 언론 장악 기도라고만 할 것입니까? 걸핏하면 음모고 걸핏하면 장악입니까? 제발 음모적 시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지율이 제자리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KBS를 개혁하는 데 무슨 국정조사 타령입니까?

내용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연주 해임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정연주 해임이 불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기반에서 이 국정조사라는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정력을 그렇게 잘못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겁니다.

(「심재철 의원! 당신이 지난 17대 때 했던 일을 생각해」 하는 의원 있음)

차라리 정연주 코드 방송이 그림다고 말씀하십시오. 언론 장악이 아니고 KBS 개혁입니다. KBS는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잘못된 행태를 보여 온 모습, 이번에 바꾸어야 합니다. KBS의 개혁을 언론 장악이라고 방송 장악이라고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시갑 출신 민주당 강창일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가 있

는데 그 부회장 자격으로서 그리고 일천만 불교도들을 대신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독교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다종교가 포용되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며 너무나 기초적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시대 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이렇게 종교 편향, 종교 차별, 특히 불(佛) 차별을 이렇게 합니까? 다 열거해야 되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종교 편향, 종교 차별에 앞장서 있다고 해도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을 재직하던 때 기억하십니까? 2004년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한다, 2005년 청계천 복원을 하느님의 역사 등등……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소망교회 출신들, 청와대 참모진에 많이 발탁을 해 가지고 이른바 ‘고소영’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다음에 현재 장관 16명 중에서 불교도 한 사람도 없고 기독교 10명, 열 분이 계십니다. 천주교 두 분, 무종교 네 분입니다.

차관급에는 말이지요, 25명 중에서 불교도가 단 한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교 23%, 불교도가 전국 국민의 23%입니다. 좀 해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나치지요?

청와대의 정무수석인 홍보기획비서관 시절 촛불집회 배후를 언급하며 사탄의 무리라고 한 추부길 목사, 그가 물러난 다음 청와대에 들어간 박영모 목사, 청와대에 기도와 찬송가가 울려 퍼지도록 하고 모든 정부부처를 복음화 시키겠다고 당당히 발언했던 주대준 청와대 경호처 차장, 이런 분들이야 말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기독교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실용정부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와대는 물론 행정부와 고위공무원까지도 그

종교 차별·종교 편향 전염병이 걸려서 지금 치유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참모들 하는 것 보면 말이지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을 거예요. 과잉충성하고 있어요, 과잉충성, 출세할라고.

이런 사람보고, 그런 것에 놀아난 사람보고 ‘암군’ ‘혼군’이라고 합니다. 한자 말씀에는 ‘혼군’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 밑에서 장난치는 것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둡다고 그래요, 어둡다고. 잘라내야지요,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일 범불교도대회 열립니다. 립 서비스 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갈등 상황에…… 이런 적 본 적 있습니까? 왕조시대 때에 몇 번 있었을까, 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 망합니다.

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에서 그 유명한 절간들 전부 표시하지 않고 교회는 잔뜩 표시해 놓고……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 기독교 믿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 기독교 욱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법대로, 법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대로 정책을 펴야지요.

자신의 종교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예수님 사랑에도 어긋나고 부처님의 자비에도 어긋나는 못난 행위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파기하는 종교차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여 크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 편향 차별 정책을 못하게 하는 정부조직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야 관계없이 만장일치로, 기독교·불교 따지지 마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투표 결과

위원회	투표 결과			
국회운영	홍준표 무효 3	229	원혜영 기 권 1	4
법제사법	유선호	232	기 권 2	무효 3
정 무	김영선	227	기 권 4	무효 6
기획재정	서병수	232	무효 5	
외교통상 통 일	박 진	232	남경필 3	무효 2
국 방	김학송 무효 2	233	김장수 1	기 권 1
행정안전	조진형	228	기 권 4	무효 5
교 육 과학기술	김부겸 무효 2	231	권영길 1	기 권 3
문화체육 관광방송 통 신	고홍길	230	기 권 3	무효 4
농림수산 식 품	이낙연 무효 3	231	강기갑 1	기 권 2
지식경제	정장선 기 권 1	229	이강래 1 무효 5	이영애 1
보건복지 가 족	변용전	230	기 권 1	무효 6
환경노동	추미애 기 권 5	223	박준선 1 무효 7	홍희덕 1
국토해양	이병석	230	기 권 2	무효 5
정 보	최병국	231	기 권 2	무효 4
여 성	신낙균 기 권 2	229	박선영 2 무효 3	곽정숙 1
예산결산 특 별	이한구 무효 4	229	이정희 1	기 권 3
윤리특별	심재철 홍일표 무효 23	202	강기정 2 김재경 1	조배숙 2 기 권 5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운태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본철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낙성	김노식	김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세웅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국현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효대
양승조	양정례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선호
유성엽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낙연	이명수	이무영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시종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정희	이종구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두성	임영호
장광근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몽준	정미경	정세균
정양석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이명수 의원 표결기 오작동. 현경병 의원 표
 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04인, 찬성
 의원 204인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52인)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고홍길	구본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낙성	김동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식	김세연	김세웅
김소남	김영진	김용구	김우남
김을동	김재윤	김정권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국현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민순
송영선	신낙균	신상진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안규백	안민석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광재	이낙연
이명수	이무영	이범래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현	이시종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진복
이춘석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두성	장광근
전혜숙	장윤석	전여옥	전현희
정양석	정몽준	정미경	정양석
정진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해결	정희수	조문환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진래	조문환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주승용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최철국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경병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12인)

곽정숙 권택기 김영우 김용태
 원희룡 이경제 이애주 이인기
 이정희 조순형 홍희덕 황진하

기권 의원(19인)

강명순 김무성 김장수 송훈석
 심재철 원유철 유성엽 유정복
 유정현 이종걸 이학재 정해걸
 조정식 조진형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최연희 추미애
 (장광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83인, 찬성 의원 152인임)

안규백 안민석 안효대 양승조
 양정례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제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낙연 이명수 이무영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성남 이성현
 이시종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두성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세균 정양석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정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출장 의원(13인)

김성태 김태환 문희상 박상은
 오제세 이달곤 이범관 이석현
 이윤성 임해규 진영 최욱철
 홍재형

○청가 의원(29인)

강성중 김기현 김성회 김영록
 김정훈 김종률 나경원 남경필
 서상기 송영길 신성범 신영수
 안상수 안홍준 우제창 유일호
 윤두환 이명규 이용삼 이재선
 이정현 이종혁 이해훈 임태희

○출석 의원(241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본철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립 김금래
 김낙성 김노식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세웅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욱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국현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종표 서청원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장 제 원 전 병 헌 정 옥 임 조 원 진
조 윤 선

○출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 태 평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계 동
입 법 차 장 도 재 문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	최인기	민주당	2008. 8. 21
감사원장(김황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남경필	한나라당	2008. 8. 26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별	장윤석 강용석 김정훈 박준선 손숙미 신지호 이범래 이인기 홍일표	한나라당	2008. 8. 20
	최인기 이시중 노영민 김종률 김재윤 전현희	민주당	
	박선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정영희(친박연대) 이윤석(무소속)	비교섭단체	
감사원장(김황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남경필 유기준 박준선 여상규 이범래 정미경 홍일표	한나라당	2008. 8. 21
	백원우 양승조 최문순 안규백	민주당	
	김창수	선진과 창조의 모임	
	송영선(친박연대)	비교섭단체	
대법관(양창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김재경 여상규 신성범 손범규 권영진 현기환 고승덕	한나라당	2008. 8. 25
	천정배 우윤근 박영선 이춘석	민주당	
	이영애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정희(민주노동당)	비교섭단체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감사원장(김황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유기준	한나라당	2008. 8. 26
	백원우	민주당	
	김창수	선진과 창조의 모임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특별	김우남	이춘석	민주당	2008. 8. 19
	신학용	전현희		
감사원장(김황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여상규	강용석	한나라당	2008. 8. 25

○의안 제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대표 발의)

(2008. 8. 19 이진삼·윤상현·임동규·권영진·임영호·신상진·김동성·박상돈·박선영·박지원·이명수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안홍준·박근혜·성윤환·강성천·강석호·김영진·김재윤·유성엽·이혜훈·나경원·구본철·임동규·안상수·나성린·윤상현·임영호·정양석·이인기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안홍준·박근혜·김효석·성윤환·강성천·정영희·강석호·김영진·김재윤·이혜훈·나경원·구본철·임동규·안상수·나성린·윤상현·이인기 의원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성윤환·강석호·김효재·백성운·안상수·유기준·유재중·이인기·이한성·장광근·정해걸·주광덕·최구식·한선교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혜훈 · 홍일표 · 구분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혜훈 · 홍일표 · 구분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혜훈 · 홍일표 · 구분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운선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조운선 · 김학송 · 원희룡 · 이용경 · 이혜훈 · 유기준 · 강성중 · 유성엽 · 권영진 · 백성운 · 홍일표 · 구분철 · 이한성 · 이종혁 · 안상수 · 임동규 · 홍장표 · 신상진 · 나성린 · 임영호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혜훈 · 홍일표 · 구분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혜훈 · 홍일표 · 구분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혜훈 · 홍일표 · 구분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혜훈 · 홍일표 · 구분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혜훈 · 홍일표 · 구분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혜훈 · 홍일표 · 구분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혜훈 · 홍일표 · 구분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변재일 · 이종걸 · 양승조 · 김종률 · 김효석 · 이시중 · 안규백 · 유선호 · 우제창 · 이용섭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임동규 · 유기준 · 양정례 · 백성운 · 송영선 · 김성태 · 강승규 · 이정선 · 김태환 · 윤석용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황진하 · 강석호 · 구분철 · 김동성 · 백성운 · 손범규 · 송민순 · 윤영 · 양승조 · 양정례 · 이한성 · 임영호 · 이학재 · 정영희 · 현기환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08. 8. 20 김태원 · 김재윤 · 백성운 · 양정례 · 이해봉 · 김영진 · 홍일표 · 박선영 · 이혜훈 · 구분철 · 안상수 · 임동규 · 신상진 · 김효재 · 박종희 의원 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08. 8. 20 우윤근 · 박기춘 · 양승조 · 송민순 · 백재현 · 김영록 · 김영진 · 주승용 · 안민석 · 이윤석 · 강창일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08. 8. 20 박지원 · 김재윤 · 최규성 · 박선숙 · 박주선 · 이진삼 · 박상돈 · 이명수 · 안형환 · 임영호 · 양승조 · 유성엽 · 박기춘 · 유선호 · 양정례 · 김우남 · 최문순 · 이미경 · 김영진 · 김희철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08. 8. 20 박지원 · 이미경 · 김희철 · 박종희 ·

김재윤 · 최규성 · 박선숙 · 박주선 · 김성태 · 이진삼 · 양승조 · 강창일 · 서종표 · 유성엽 · 장세환 · 박기춘 · 유선호 · 양정례 · 김우남 · 최문순 · 임영호 · 박상돈 · 이명수 · 안형환 의원 발의)

韓國勞動敎育院法 일부개정법률안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8. 8. 20 정부 제출)

식중독관리법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8. 8. 20 임두성 · 김소남 · 정해결 · 강성천 · 손범규 · 안홍준 · 윤석용 · 김성수 · 이성현 · 윤두환 의원 발의)

障碍人 · 老人 · 妊産婦등의便宜増進保障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08. 8. 20 김성태 · 강운태 · 홍일표 · 구분철 · 이한성 · 임동규 · 홍장표 · 유성엽 · 김희철 · 정영희 · 이성현 · 신상진 · 박종희 · 이경재 · 김성수 · 이해봉 · 김성순 · 양정례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 발의)

(2008. 8. 20 김성희 · 강석호 · 강승규 · 김성태 · 김태원 · 김효재 · 나경원 · 남경필 · 박종희 · 배은희 · 백성운 · 손범규 · 정병국 의원 발의)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심대평 의원 대표발의)

(2008. 8. 20 심대평 · 류근찬 · 임영호 · 이명수 · 이용희 · 이상민 · 김용구 · 권선택 · 김낙성 · 김장수 · 이재선 · 박상돈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08. 8. 21 김태원 · 홍일표 · 구분철 · 이한성 · 안상수 · 홍장표 · 황우여 · 나성린 · 김성태 · 이성현 · 정희수 · 신상진 · 김성순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8. 8. 21 박상돈 · 강승규 · 강창일 · 구분철 · 김낙성 · 김동성 · 김성순 · 김성태 · 김영진 · 김용구 · 김창수 · 김충조 · 김태원 · 류근찬 · 박선영 · 박종희 · 박지원 · 심대평 · 양승조 · 양정례 · 유성엽 · 이명수 · 이상민 · 이영애 · 이용희 · 이재선 · 이진삼 · 이한성 · 이해봉 · 이해훈 · 임영호 · 장세환 · 정양석 · 조경태 · 주승용 · 홍정욱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

(2008. 8. 21 박대해 · 유성엽 · 조원진 · 정하균 ·

김소남 · 김정권 · 유재중 · 이한성 · 안상수 · 임영호 · 안경률 · 백성운 · 김우남 · 안홍준 · 양정례 · 김효재 · 김무성 · 송영선 · 조문환 · 이철우 · 김성희 · 정영희 · 정희수 · 김성조 · 박종희 · 정해결 · 김성태 · 이해훈 · 서상기 · 홍정욱 · 이계진 · 배은희 · 한선교 · 윤석용 · 나성린 · 손범규 · 허원제 · 박민식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08. 8. 21 손범규 · 김성태 · 김태원 · 유성엽 · 홍일표 · 홍장표 · 황우여 · 이한성 · 고승덕 · 신상진 · 강성천 · 이인기 의원 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08. 8. 21 손범규 · 강성천 · 장세환 · 김성태 · 김태원 · 유성엽 · 홍일표 · 홍장표 · 황우여 · 고승덕 · 신상진 · 나성린 · 이경재 · 이한성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08. 8. 21 이학재 · 여상규 · 류근찬 · 변웅전 · 양정례 · 황우여 · 이진삼 · 김정권 · 김태원 · 김성곤 · 심대평 · 양승조 · 이경재 · 현기환 · 이군현 · 손범규 · 김낙성 · 김성희 · 박선영 · 이해훈 · 이명수 · 이정선 · 홍일표 · 허원제 · 조진형 · 노철래 · 김효재 의원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8. 21 정부 제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세환 의원 대표 발의)

(2008. 8. 21 장세환 · 양승조 · 강창일 · 이해훈 · 강성종 · 유성엽 · 윤석용 · 유선호 · 조영택 · 백성운 · 신상진 · 신학용 · 최영희 · 김충환 · 신낙균 · 김충조 · 김성순 의원 발의)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08. 8. 21 신낙균 · 이종걸 · 박기춘 · 양승조 · 유선호 · 김상희 · 김희철 · 안규백 · 김충조 · 김동철 · 최영희 · 이용섭 · 김우남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08. 8. 21 김상희 · 이해훈 · 김재윤 · 김동철 · 광정숙 · 이정희 · 이미경 · 이재주 · 최문순 · 신낙균 · 김금래 · 박선숙 ·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김희철 · 유선호 · 백성운 · 김성태 ·

황우여 · 김동철 · 홍장표 · 홍일표 · 박영선 · 김성곤 · 장세환 · 유성엽 · 이윤석 · 신낙균 · 이인기 · 이성남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김희철 · 유선호 · 백성운 · 김성태 · 황우여 · 김동철 · 홍장표 · 홍일표 · 박영선 · 김성곤 · 장세환 · 유성엽 · 이윤석 · 신낙균 · 이인기 · 이성남 의원 발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김소남 · 고승덕 · 홍장표 · 양정례 · 강석호 · 배은희 · 이해훈 · 이경재 · 홍일표 · 구본철 · 이종혁 · 신상진 · 안상수 · 임동규 · 김충조 · 나성린 · 강성천 · 안홍준 · 정하균 · 김효재 의원 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원유철 · 김성수 · 남경필 · 박종희 · 신영수 · 심재철 · 안상수 · 유일호 · 이화수 · 정병국 · 정장선 · 주광덕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상수 · 유성엽 · 박종희 · 이명수 · 강석호 · 이화수 · 정해걸 · 조해진 · 김금래 · 박상돈 · 김성태 · 박보환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이주영 · 박보환 · 김금래 · 임두성 · 유성엽 · 이화수 · 안상수 · 박종희 · 정해걸 · 박상돈 · 이명수 의원 발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이재선 · 원희룡 · 이상민 · 이학재 · 우윤근 · 박선영 · 김성곤 · 정영희 · 양승조 · 이인기 · 김금래 · 김정권 · 윤석용 · 허태열 · 임동규 · 안상수 · 심대평 · 김충조 · 구본철 · 오제세 · 박지원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성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김동성 · 안상수 · 양정례 · 백성운 · 이한성 · 김소남 · 박준선 · 김성수 · 홍정욱 · 손범규 · 신상진 · 홍일표 · 정해걸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이정현 · 박상돈 · 이경재 · 황영철 ·

신학용 · 신성범 · 한선교 · 김태원 · 홍장표 · 유성엽 · 이해봉 · 장광근 · 김무성 · 이성현 · 정영희 · 김영우 · 임두성 · 유승민 · 이성남 · 구본철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이정현 · 박상돈 · 이경재 · 황영철 · 신학용 · 신성범 · 한선교 · 김태원 · 홍장표 · 유성엽 · 이해봉 · 장광근 · 김무성 · 이성현 · 정영희 · 김영우 · 임두성 · 유승민 · 이성남 · 구본철 의원 발의)

國會에서의證言 · 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이정현 · 박상돈 · 이경재 · 황영철 · 신학용 · 신성범 · 한선교 · 김태원 · 홍장표 · 유성엽 · 이해봉 · 장광근 · 김무성 · 이성현 · 정영희 · 김영우 · 임두성 · 유승민 · 이성남 · 구본철 의원 발의)

200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

2009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2건 2008. 8. 22 정부 제출)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박주선 · 김영진 · 이용섭 · 유선호 · 김동철 · 김세웅 · 이윤석 · 김희철 · 이성남 · 박지원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강창일 · 양정례 · 이해봉 · 신낙균 · 박기춘 · 이한성 · 김영진 · 박영선 · 우윤근 · 박선숙 · 유선호 · 김성순 · 이낙연 · 김효석 · 김종률 · 강기정 · 김재윤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강창일 · 양정례 · 이해봉 · 신낙균 · 박기춘 · 이한성 · 김영진 · 박영선 · 우윤근 · 유선호 · 김성순 · 이낙연 · 김효석 · 김종률 · 강기정 · 김재윤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박종희 · 양정례 · 이화수 · 백성운 · 김성곤 · 서청원 · 김성수 · 유성엽 · 김충조 · 김소남 · 박준선 · 구본철 · 정병국 · 박민식 · 오제세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강창일 · 장세환 · 전해숙 · 최규식 · 김효석 · 권영진 · 이낙연 · 유선호 · 최문순 · 이한성 · 김영진 · 박영선 · 김종률 · 우윤근 · 박선숙 · 문국현 · 이진삼 · 오제세 · 신낙균 · 이미경 · 강기정 · 김재윤 의원 발의)

만성질환관리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강기정 · 강창일 · 양승조 · 이미경 · 안민석 · 이석현 · 김우남 · 서갑원 · 김동철 · 김종률 · 유선호 · 최재성 · 백원우 · 조영택 · 김성순 의원 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박상돈 · 권선택 · 김낙성 · 김성곤 · 김성순 · 김용구 · 김창수 · 김희철 · 노영민 · 류근찬 · 박선영 · 심대평 · 양승조 · 오제세 · 우제창 · 이명수 · 이상민 · 이영애 · 이용희 · 이재선 · 이진삼 · 이희창 · 임영호 · 주승용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김성순 · 박상돈 · 장세환 · 양승조 · 이성남 · 김충조 · 김진표 · 안규백 · 김유정 · 김성곤 · 신낙균 · 이낙연 · 이용섭 · 원희목 · 이미경 · 송영길 · 박선숙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김성순 · 박상돈 · 장세환 · 양승조 · 이성남 · 김충조 · 김진표 · 안규백 · 김유정 · 김성곤 · 신낙균 · 이낙연 · 이용섭 · 원희목 · 이미경 · 송영길 · 박선숙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김성순 · 박상돈 · 장세환 · 양승조 · 이성남 · 김충조 · 김진표 · 안규백 · 김유정 · 김성곤 · 신낙균 · 이낙연 · 이용섭 · 원희목 · 이미경 · 송영길 · 박선숙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김성순 · 박상돈 · 장세환 · 양승조 · 이성남 · 김충조 · 김진표 · 안규백 · 김유정 · 김성곤 · 신낙균 · 이낙연 · 이용섭 · 원희목 · 이미경 · 송영길 · 박선숙 의원 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이광재 · 김재윤 · 김종률 · 백재현 · 백원우 · 손숙미 · 이계진 · 이시중 · 이용섭 ·

정병국 · 최연희 · 최옥철 · 최철국 · 황영철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이용섭 · 송민순 · 유성엽 · 강성천 · 최문순 · 김성순 · 우제창 · 김성곤 · 양승조 · 이인기 · 안민석 · 김희철 · 김재윤 · 김영진 · 유선호 · 이성남 · 이낙연 · 홍일표 · 오제세 · 박선숙 · 강석호 · 홍희덕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이용섭 · 송민순 · 유성엽 · 강성천 · 최문순 · 김성순 · 우제창 · 김성곤 · 양승조 · 이인기 · 안민석 · 김희철 · 김재윤 · 김영진 · 이성남 · 이낙연 · 오제세 · 박선숙 · 강석호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이미경 · 이종구 · 김성조 · 김무성 · 서상기 · 황진하 · 이성남 · 박지원 · 신학용 · 강창일 · 양승조 · 김종률 · 박선숙 · 유성엽 · 김성곤 · 김재윤 · 최영희 · 안민석 · 김상희 · 김희철 · 김세웅 · 최문순 · 김유정 · 강기정 · 김성순 · 이명수 의원 발의)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임태희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임태희 · 유선호 · 김영진 · 김충조 · 박상천 · 정의화 · 김부겸 · 김성곤 · 김성조 · 김효석 · 송영길 · 원희룡 · 이낙연 · 정갑윤 · 강기정 · 강운태 · 강창일 · 김동철 · 김우남 · 김재윤 · 김정훈 · 김진표 · 나경원 · 문학진 · 박종희 · 박주선 · 박지원 · 서갑원 · 양승조 · 우윤근 · 우제창 · 이성현 · 이종구 · 이해훈 · 전병헌 · 정두언 · 주승용 · 최인기 · 강석호 · 강성천 · 강승규 · 고승덕 · 김성태 · 김세웅 · 김소남 · 김영록 · 김유정 · 김재균 · 김희철 · 나성린 · 박대해 · 박보환 · 백성운 · 손범규 · 안규백 · 안형환 · 안효대 · 양정례 · 유성엽 · 유일호 · 유정현 · 윤상현 · 윤석용 · 이무영 · 이용섭 · 이윤석 · 이정선 · 이진삼 · 이춘식 · 이화수 · 임두성 · 전해숙 · 정양석 · 조영택 · 조전혁 · 최문순 · 현경병 · 현기환 · 홍정욱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신낙균 · 이낙연 · 이종걸 · 강창일 ·

이혜훈·이성현·이광재·양승조·권영진·홍일표·김상희·박선영·이애주·김희철·신상진·안규백·신학용·김충조·김동철·최영희·이용섭·최문순·김성순·김우남·강석호·박민식·김효재·박지원·오제세·박선숙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신낙균·이낙연·이종걸·강창일·박영선·이혜훈·이성현·이광재·양승조·권영진·홍일표·김상희·박선영·이애주·김희철·신상진·안규백·신학용·김충조·김동철·최영희·이용섭·최문순·김성순·김우남·강석호·박민식·김효재·박지원·오제세·박선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신낙균·이종걸·박기춘·이광재·양승조·장세환·김희철·안규백·신학용·김충조·이용섭·김성순·김우남·홍희덕 의원 발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권경석·강성천·나성린·조운선·정영희·이한성·박민식·안상수·홍일표·강석호·이명규·송영선 의원 발의)

독도의 영토수호와 지속가능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이용섭 의원 발의)

(2008. 8. 25 이용섭 의원 외 82인 발의)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황우여·이학재·이한성·김소남·구본철·이애주·홍일표·원희룡·고승덕·박상은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백성운·안상수·김태원·김효재·홍일표·손범규·구본철·박종희·이정선·윤상현·권영진·나경원·임동규·고승덕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배은희·황우여·정하균·안상수·김소남·박준선·손범규·이정선·정해걸·박선영·나성린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배은희·황우여·나성린·안상수·정갑윤·김금래·김성태·손범규·김을동·김기현 의원 발의)

이상 76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최윤희) 선출안

(2008. 8. 20 의장 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8. 25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장 제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11건 2008. 8. 26 의장 제의)

○의안 심사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8. 6. 5 강기갑·곽정숙·권영길·변재일·안민석·이낙연·이시종·이정희·조배숙·최규성·홍희덕·김종률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8. 6. 5 최인기·문학진·신낙균·정장선·강기정·이종걸·이낙연·송영길·김유정·김춘진·김재운·조경태·최규성·김종률·안민석·이용섭·박주선·김영진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

(2008. 7. 14 류근찬·이진삼·임영호·권선택·박상돈·김창수·변웅전·심대평·김용구·김낙성·박선영·이영애·이명수·이희창·이재선·이상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3건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
장 보고

○청원 제출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

(2008. 8. 20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30 서
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김재복 외 27
인으로부터 박영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사립학교시설용지 조성원
가 공급요구에 관한 청원

(2008. 8. 2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한
국1차아파트 103-405 김정현 외 7인으로부터
김진표 의원 외 19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요구서 제출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 실태규
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2008. 8. 26 원혜영·강기갑·문국현 의원
등 90인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국적포기자 현황 등에 관한 질문서

(2008. 8. 19 신학용 의원 제출)

대기업 총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관한 질문서

(2008. 8. 20 홍일표 의원 제출)

범죄예방위원회에 관한 질문서

(2008. 8.22 박상은 의원 제출)

도로 중앙분리대 가변 운영에 관한 질문서(2건)

(이상 2건 2008. 8. 25 양정례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국방부의 불온서적 23선 선정 및 발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
한 답변서

(이상 2건 2008. 8. 18 정부 제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우이령고개 통행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08. 8. 19 정부 제출)

한국방송공사사장에 대한 해임제청 요구에 관
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감사원의 한국방송공사(KBS) 운영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08. 8. 19 감사원장 제출)

우이령고개 통행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2008. 8. 20 정부 제출)

국회법 등에 의거해 국회의원이 감사의 목적으
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일반인들의 정보
공개 요구 등을 법률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요구에 관한 법률을 들어 거부한 것
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8. 8. 21 정부 제출)

민간단체(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8. 8. 21 대법원장 제출)

감사원장 후보자(김황식)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8. 8. 22 대법원장 제출)

(이상 10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